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11~12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바이오헬스 성과가 한자리에, 「차기(NEXT) 반도체」로의 도약 다짐

-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11.30-12.1), 유공 포상 및 성과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영욱)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12월 1일(목)까지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 기술진흥과 산업진흥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이뤄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공유했다.
 - 유공자 포상은 5개 분야에서 97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유공 41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25점,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8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공 14점,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 9점이다.
 - 국민훈장 목련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故 박만훈 前 부회장에게 수여된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국내 백신 R&D의 역량 제고와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근정 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치료 방침을 확립한 서울대학교 구분권 교수에게 수여됐다.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예후를 호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통령 표창은 의료용 로봇 연구를 통해 K-Medical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 의료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권동수 명예교수에게 수여됐다.
- 국무총리 표창은 세계 최초 인공 고막 패치 개발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 발전에 공헌한 한림대학교 박찬흠 교수와 뇌졸중 환자 진료 지침 마련 등 뇌졸중 연구에 기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배희준 교수에게 각각 수여됐다.

■ 행사 첫째 날인 11.30(수) 오후부터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등 각 사업별 성과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경험과 전략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산업의 투자 동향 및 국내 투자 유치 전략을 공유했다.
-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병원·대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발표하고 차별화 전략을 공유했다.

* 바이오헬스 기술이전전담조직 민관협의체(51개소, '13. 5월~)

■ 둘째 날인 12.1(목)에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개방형실험실과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등의 성과가 발표됐다.

- * (개방형 실험실) 병원의 연구시설·장비를 개방하고 임상 의사와 기업 간 공동연구, 제품 실증 및 실용화 지원('19년~)
-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역의 연구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연구 공간·시설·장비를 공유하고 병원이 협력하여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육성('19년~)
- 또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과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속 임상시험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검체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지원('20년~)

*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선진국의 의료기기 안전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지원센터 운영·지원('15년~)

*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판매장('12년~) 및 홍보 팝업 부스 운영 지원('18년~)

- 아울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교류 시간을 마련했다.

*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기술경영(R&D관리 등), 인허가 및 보험, 마케팅 등 의료기기산업 전주기에 전문성을 가지는 석사급 핵심인력 양성(13년~)

-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포상을 받으신 한분 한분은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숨은 주역들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현장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Next) 반도체’로 성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006. 보건산업정책과 2022.11.30.

II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금)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였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 ① 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 MRI → 자기공명영상, ③ 경구투여 → 먹는 약, ④ 객담 → 가래, ⑤ 예후 → 경과, ⑥ 수진자/수검자 → 진료 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 홀닥터 → 가정주치의, ⑩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1	보건	보건의료	CT, 시티, 씨티	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2	보건	보건의료	MRI, 엠알아이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3	보건	식품의약품안전	경구투여(약)	經口投與(藥)	먹는^약
4	보건	보건의료	객담	喀痰	가래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5	보건	보건의료	예후	豫後	경과
6	보건	보건의료	수진자/수검자	受診者/受檢者	진료받는^사람 /검사받는^사람
7	보건	보건의료	자동제세동기	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8	보건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mobile 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9	보건	보건의료	홈닥터	home doctor	가정^주치의
1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	要保護兒童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화 용어'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20. 홍보기획담당관 2022.12.02.

III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1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021. 노인지원과 2022.12.04.

IV

어린이집 보육, ‘다(多)가치’ 해요!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정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모델 활성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12월 8일(목) 오후 2시, ‘더 세인트(서울, 구로구)’에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다가치 보육’은 초저출산 시대,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 4~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일부를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무회계 컨설팅, 운영기준 교육 등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지난 해 서울(마포구), 인천, 충남 3개 지역에서 시작했던 동 사업은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충북, 강원, 울산을 추가한 6개 지역, 147개 어린이집의 참여로 진행 중이다.

○ ‘다가치 보육’에 참여한 그룹별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 어린이집내 보육과정 다양화, ▲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구체적 운영사례들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 다가치 성과보고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faWRYxEeG98>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부담은 완화하고, 보육프로그램 창의성과 다양성은 제고하여,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되었다”라며,

○ “‘다가치 보육’ 협력모델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가치 보육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037. 보육기반과 2022.12.08.

V

해외에서도, 응급실에서도, 군의무대에서도! 유용한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건강을 지켜요

-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 총 10편 수상작 시상(12.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 '나의건강기록' 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2월 출시되었다.

* (의료 마이데이터)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 ▲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

○ 이번 공모전은 “나의 건강정보, 내가 직접 활용해요!”를 주제로 하여 11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1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의 뜻깊은 수기 총 67건이 접수되었다.

■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대상 5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수여

■ 최종 선정된 수상작 중 대상과 우수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을 받은 황규찬 님은 해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준비해간 의료 기록 서류가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영문으로 된 의료 기록을 외국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 우수상은 총 세 명으로, 김○아 님은 올해 8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을 때, 백찬희 님은 부모님의 각종 건강검진 결과를 한눈에 보고 건강관리를 도

와드릴 때, 이충헌님은 육군 의무병 복무 중 육군 장병들의 예방접종 이력 확인을 도와주고 예방접종 해줄 때 '나의건강기록' 앱을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를 전달하였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여 의료 마이데이터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아이폰용)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 12월 9일(금) 기준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의 대표 건강관리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나의건강기록' 검색 후 설치

-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나의건강기록' 앱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UI/UX*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037. 보육기반과 2022.12.08.